

전주시장 · 전주시의회, 비상 계엄 관련 입장문 발표

우범기 시장,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 하겠다”

시의회, “대통령의 사죄와 철저한 진상 규명 · 책임 추궁” 요구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 각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 하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입장문 발표

우범기 시장은 지난 밤 예기치 못한 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과 현명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일단락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시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비상시 안전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점검하고, 전 부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시민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실현은 전주시의 핵심 가치이고 전주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유관 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주시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도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주시는 2,400여 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전주시의회,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성명서 발표

전주시의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45년 만의 계엄 선포 사태는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가결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국민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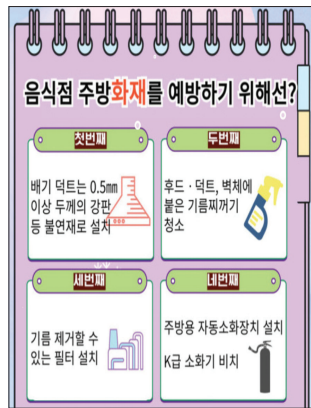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

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고,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고 남관우 의장 외 의원 32명의 이름으로 성토했다.

/김옥기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음식점 주방화재 예방법 적극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음식점 주방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4일 밝혔다. 음식점 화재는 기름 과열 및 발화, 배기 후드 및 덕트 내부에 쌓인 기름 때, 조리기구를 켜 채로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 가스 누출 및 폭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주방 화재의 경우 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가 급속도로 진행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시 기름 온도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가스 밸브와 배관 정기적 점검 △사용하지 않는 가스 밸브 잠그기 △벽과 후드·덕트의 주기적인 청소를 통한 기름때 제거 △화기 주변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구멍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구멍이 환기 및 환기기구 정비 등이다.

또한, 화재예방 및 대처 방법(초기 소화요령)을 숙지하고 비상구와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음식점 주방 화재가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방 화재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기기자

전북현대 마지막 승강전, ‘1994 특별노선’ 대폭 증차

전주시, 8일 플레이오프 경기 위해 확대 운영



프로축구 승강전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오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1994 특별노선'이 두 배 가까이 확대 운영된다.

프로축구 승강전 마지막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오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오가는 '1994 특별노선'이 두 배 가까이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북현대모터스FC와 서울이랜드FC의 승강전 플레이오프(PO) 경기가 펼쳐지는 오는 8일 전주시민과 축구팬들의 대중교통 이용을